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개최를 향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김 양 보

I. 세계자연보전 총회(WCC)란?

세계자연보전총회(WCC : World Conservation Congress)는 환경보전분야 세계 최대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환경회의이다. 이 총회는 180개국 1,200여개 단체에서 10,000여명 이상이 참가하여 토론, 전시회, 원탁회의, 워크숍, 지역 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포럼(World Conservation Forum)과 회원들의 논의를 위한 총회(Members' Assembly)가 함께 열흘 동안 개최되는 명실상부한 환경올림픽이다. 이 총회에서는 IUCN의 사업을 환경보전 포럼과 연계하여 전 세계의 IUCN 회원들과 직접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국제 환경 정책 방향 제시, IUCN 6개 위원회의 업적 평가 및 보전 사업에 대한 검토, 100개 이상의 지구환경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동안 본 총회는 1948년부터 1994년까지는 IUCN 총회 형식으로만 개최되었으나, 1996년 Montreal 1차 회의부터 World Conservation Congress 형식을 지니게 되고, 2000년 Amman 2차 회의, 2004년 Bankok 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제4차 총회는 2008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렸으며, 179개

국에서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열렸고, 여기에서는 970여개 회의, 협약,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환경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치 추진중인 제5차 총회('12.10)와 관련하여서는 개최지 결정이 올 11월에 결정되어 짐에 따라 1월에 세계 주요 국가에서 1차로 11개국의 유치신청을 IUCN본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여기서 멕시코 칸쿤과 제주가 최종 실사 대상후보지로 선정되고 개최 후보지의 현지실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이 오는 11월 25일 IUCN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예정으로 개최지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세계보전총회를 주관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대해서 잠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정부기관 및 NGO 연합체 형태로 1948년 창설되었으며 스위스 글랑에 본부를 두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84개 국가회원, 140개국 111개 정부기관, 87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전문가 단체 가입되어 있으며, 11,000여명의 각 분야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여 6개 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그 활동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 학계, 국공기관, NGO 등 각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5개 기관 가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도인 경우에는 지난해 1월 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그해 10월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I. 그동안의 유치 활동에 대하여

제주도는 지난 2007년 말 WCC유치를 공언하고 지금까지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8년 1월 IUCN에 가입신청을 시작으로 같은 해 2월 세계생물권보전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시작하였다. 작년 9월에 IUCN이사회의 의결로 제주도가 공식 IUCN 회원으로 가입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WCC유치를 건의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제4차 바르셀로나 총회에 환경부와 함께 제주도지사, 도의회 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IUCN 회장, 이사 등을 상대로한 본격적인 환경총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제10차 랍사르총회시 환경부장관이 IUCN 사무총장에 유치의사를 직접 표명하면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유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이 뒤늦게 회의 유치에 뛰어든 상황이었지만, IUCN 사무총장은 한국이 WCC 개최지로써 매력적인 국가라는 답변을 통해 충분히 한국유치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 전개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올 1월에 IUCN 사무국에 유치의향서를 환경부장관과 제주도지사 명의로 정식으로 접수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년간의 적극적인 유치의사와 객관적으로 환경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국내 개최지로 최종적으로 제주가 선정되었다.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유치제안서 등 유치전략을 마련했으며, 특히, 제안서에는 개최 당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유치제안서 작성했으며, 개최지역이 이사들의 투표로 결정됨을 감안, IUCN 이사와의 개별 홍보활동 강화하는 전략을 전개했다. 또한, WCC 개최지 선정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IUCN 사무국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으로 효과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는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핵심포인트를 만들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핵심요소를 만들었다. 우선적으로, i) 전통과 IT 기술이 만나는 곳, ii) 높은 인구밀도, 압축경제 성장에도 자연환경을 잘 보전한 모범국가, iii) 녹색성장 추진전략으로 IUCN 발전에 기여, iv)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경험 등을 우리나라의 핵심강점으로 하고, 제주인 경우에 자연환경과 개최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는 i) 세계 자연유산 보유국인 우수한 자연환경, ii) 범죄와 테러가 없는 평화의 섬, iii) 무비자 입국 국가, iv) 훌륭한 국제회의 인프라 등을 주요 핵심 홍보 포인트로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 민간단체 간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치 및 준비과정에서부터 각 분야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을 추진했다. 유치제안서는 경쟁도시보다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회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작성을 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참가자 지원, 음료수(삼다수) 무료 제공 등 재정지원 조건 제시했으며, 사무국 행사준비를 위한 전문가(2인) 파견, WCC 사전준비를 위한 이사회 한국 개최지원 등을 통해 IUCN 사무국이 편의를 최대한 보장했다. 특히, 4차 총회시 스페인 정부의 비협조로 행사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 구축을 중요시 했고, 이와 병행하여 국가비전인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IUCN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유치조직을 구성했다.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IUCN 한국위원회, 제주ICC, PCO 등으로 실무작업팀을 구성했으며, 유치전략 및 홍보계획수립, IUCN 이사 접촉 등 실무차원 점검 등을 추진하면서 WCC 유치 제반 실무활동을 전개 했다. 실무회의는 거의 매주 서울과 제주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되었으며, IUCN 본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갔다.

그리고, WCC가 최대 환경회의임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을 위해 국내 각계 유관기관과 전문가들로 유치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무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중앙정부(환경부,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제주도, 산업계(삼성지구환경연구소, 아시아나항공, 포스코경영연구소, KBCSD 등), 민간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유치제안서 작성 자문, 유치전략 자문,

IUCN 이사 및 IUCN 사무국 대상 대외 홍보활동,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상대 경쟁국에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응대와 반드시 WCC를 한국에 유치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급기야 범국가차원의 유치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WCC 유치위원회 구성

■ 구성목적

-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및 홍보전략 자문, 세계자연보전총회 대국민 홍보강화
- IUCN에 대해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조직체
- 총회 유치 이후의 추동력 확보

■ 구성개요

- 위원회 명칭 :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이흥구 전총리
 - 위 원 :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정부(환경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체육부, 법무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간사의원, 전경련 회장, KBCSD회장, 매일경제사장, 인천대학교총장, 자연보호중앙연맹회장, 그린스타트네트워크회장, 한국관광공사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UNESCO한국위원회사무총장, IUCN한국위원회회장 등
- 위원회 기능
 -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활동 자문
 - IUCN 이사 및 IUCN 사무국 대상 대외 홍보활동
 -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이런 범정부적인 조직적 기반위에 정부와 제주는 IUCN이사와 사무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WCC 유치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내용을 계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IUCN 이사 및 사무국에 홍보 브로셔 발송('09.2), IUCN 사무총장 대상 유치활동(제5차 세계 물포럼, '09.3.19, 이스탄불), IUCN 아시아

지역 이사(파키스탄 지역이사 등 7명) 대상 유치활동('09.3.23, 방콕), IUCN 이사 제주도 초청 및 환경포럼 개최,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간접 홍보활동 전개, 제21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제주도 개최('09.5.25~30, 유네스코 관계자 100여명 참석), IUCN 보호지역위원회 워크숍('09.9, 제주), 러시아 천연자원감독청

장 면담시 협조요청('09.6.23, 서울),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의시 일본, 중국 장관에게 협조요청('09.6.13~14, 북경), WCPA 보호지역 워크숍 한국개최('09.9.14-19, 제주), 아시아 IUCN위원회(한국 개최, '09.10.6-7, 경주)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우리나라(제주) WCC 유치 역량 제고 및 인지도를 확실하게 높아졌다고 보여지며, 이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사들에 제주 지지 분위기 확산 감지되고 있고, IUCN 사무국도 한국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현지실사에 완벽한 대응

WCC 개최지선정을 위한 유치희망도시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는 8월 말에 멕시코 칸쿤이 먼저 이루어지고, 제주는 지난 9월 14-18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실사단은 엔니크 라만(Enrique Lahmann)총괄 단장을 중심으로 대륙별 대표조사단, 컨벤션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었고, 여타 다른 회의 현지실사와는 강도 자체가 다를 정도로 10,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에 걸맞게 회의시설 숙박, 교통 등의 분야뿐 만 아니라, 비자, 의전, 세금 등 국가차원의 제도까지도 점검하고 검토되었다. 그분들의 점점 사항마다 세계인 차별됨이 없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회의에 참가하고, 세계적인 환경현안에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냉철하게 착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우리도에서도 실사를 대비하면서 환경부지사를 단장으로 도내외 분야별 관계관 및 전문가로 유치 실사준비단을 구성하였다. 실사대응을 위해 교통, 숙박 등 주요 14개 WCC 개최 요구 항목에 대해 표준화된 실사대비 대응 메뉴얼을 만들고 사전 모의 예비 실사를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등 개최 의지도 중요한

실사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과 제주도지사 면담, 나아가 총리실, 청와대, 국회 방문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 WCC 유치에 대한 개최국 및 도시 시민들의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100만인 WCC유치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범국민 회의 유치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또한, 실사 중에 환경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마련된 한라산 어리목 환경음악회와 지원협약서 전달, 종달항과 성산일출봉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자전거 타기, 미공개지역 거문오름계 동굴계 탐방 등은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벤트였고 실사단 모두가 세계의 보물인 제주환경에 대해 놀라는 계기가 되었다.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날 이루어진 도내외에서 130만명 WCC 유치기원 서명이 이루어진 서명부 전달식은 감동 그 자체였다. 실사단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도내·외 관계자들도 왜 제주가 WCC를 유치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말과 행동이 필요 없음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 엔니크 라만 실사단 단장은 그 서명부 전달식에서 지금까지 가본 현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곳이 제주라고 언급할 정도로 실사단이 제주에 매력이 빠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Ⅳ. 100만인 WCC유치기원 서명운동 전개

100만인 서명운동은 WCC 유치활동이 다른 국가보다는 늦게 뛰어들고, IUCN에 우리의 유치를 지를 보여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마련되었다. 멕시코 칸쿤이 제4차 총회유치 실패에 자극받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는 IUCN 이사들의 동정표를 살수 있다는 전제와, WCC 유치를 위해서는 관심과 열의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는데, 7월 29일 환경단체들 800여명이 학생문화회관에서 모인 가운데 시작된 서명운동은 전국민 대상 10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참여기관은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필두로 도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기관단체, 개인들이 참여하에 진행되었다. 도 자체적으로는 도, 교육청, 행정시, 읍면동 자생단체들과 함께 직접 도내 서명운동 전개하고, 각급 기관·단체 행사시 서명 참여도 유도하였다. 특히, 시대흐름에 맞게 환경부 및 제주도 홈페이지, 다음, 한라일보사 등의 주도하에 인터넷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 서명운동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보전연맹, 전국 환경관련 단체 등 참여하에 가두 서명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제주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8대도시 대상 투어 서명운동 전개, 서울역, 광화문 등에서 재외도민회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1개월 만에 거처진행된 서명운동은 IUCN실사단에 계 서명서를 전달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는 도민 39만명과 도외 국민 91만명이 서명한 130만명 서명부가 작성되고, 그 부피도 책 100여권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이런 자발적인 서명 운동에는 김영삼 전대통령, 김형우 국회의장, 그 외 국회의원, 유명환장관, 김

형국 녹색성장위원장, 서남포 KAIST 총장 등 사회 각 분야에 거쳐 다양한 인사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마음이 한꺼번에 실사단에 전달되면서 쉽지 않았던 유치활동이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V. WCC 제주유치를 꿈꾸며

2007년 말부터 시작된 WCC유치전이 이제 만2년을 넘기도 결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IUCN가입, 한국 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 제주 유치 제안서 제출, 실사대응, IUCN이사 초청 심포지엄 등 WCC 제주유치를 위해 달려온 결과는 11월 25일 스위스 룰랑에서 (IUCN)결정 된다. 우리나라 환경행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우리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초석이 될 세계환경올림픽이 130만의 바램을 가지고 한국 제주에서 개최되기를 바란다. 마지막까지 의지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는 달려갈 것이다. 환경이란 이름으로...

